

2020년 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 사랑이 빛는 감사"(시 50:23a)

'감사의 힘'(저자: 빌르 넬슨/지니 칼라바)에서 두 종류의 감사를 말합니다. 힘이 없는 감사와 힘이 있는 감사입니다. 힘이 없는 감사란 의무적 감사, 사교적, 정략적, 즉흥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인데, 이것은 은혜를 끼친 상대를 높여주면서 소중히 여기는 표현으로서 감사를 뜻합니다. 그를 내 인생에 소중한 존재로 표현해주는 것이죠.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은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고난에서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에너지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제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삶을 긍정과 기쁨으로 바꾸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와 중첩된 의미를 갖습니다.

[1]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

시편 50 편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말해주다가 결론을 23 절에서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왜 당신께 감사하라고 말씀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귀한 삶의 소명을 주시고, 함께 살 수 있는 교회와 사회와 가정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셔서 인간인 창조의 목적대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조절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절대적 유익의 공급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마음으로 우러나 드리는 감사는, 감사드리는 사람의 삶을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감사 자체에서 멈추지 않고 항상 그 후에 일어나는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건물로 들어갈 때, 앞 사람이 문을 잡아주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줍니다. 앞의 사람에게 행동에 대한 감사가 뒤에 오는 사람을 향한 배려고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라(표현하라)는 목적은 감사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담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주변을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2] 감사를 회복하는 길

이러한 감사의 중요한 의미를 알면서도 내 마음에 감사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의 '감'은 감동의 '감' 자와 같습니다. 느끼고 통하고 움직이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것을 볼 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에 느끼지 못하고 통하지 않고 경직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직되어 있어서 감동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감동은 항상 외부에만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진정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찾고 받고 드리는 삶은 메마른 마음을 일으켜 주어, 생명의 수분이 빠진 마음에 생기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사랑에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지만 결국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받아주고 기댈 수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가요? 일부 교우들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돌아오면 언제나 받아주고 반겨주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신 가족과 교회는 이 세상에서 깨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남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나, 가족이나 교회가 나의 기준과 기대에 못 미칠 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를 붙들어주고 받아주는 존재입니다. 나를 받아주고 지지하는 그 사랑에 마음의 움직임, 감동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표현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성도님들, 이 사랑으로 빛어지는 감사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의 귀한 힘을 얻고 누리는 축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